

2020 수시 '수능 최저기준' 없어지나

학종·교과전형 준비생 수능부담 완화...교육부, 대학에 폐지 권고

축소·폐지 대학 지원사업 평가 가점...靑 게시판에 유지 청원글도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대학수능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학생이 수능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어야 최종 합격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인해 학생부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 준비생들은 수능까지 준비해야 하는 등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세부 사항을 안내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바꿀 경우 교육부가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 전형 연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지원 대상 선정에 위한 평가지표(100점 만점) 가운데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을 위한 '수능 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 노력'에 3점을 배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권고 사항을 대학이 수용해 수능 최저 학력기준을 축소·폐지할 경우 적용된다"며 "그 시행학년도는 2020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과 전남대·경북대를 비롯한 지방 거점국립대 등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다수 포함됐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가 대학가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 셈이다.

4년제 대학들은 201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70% 이상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상위권 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은 80%에 육박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학교는 125곳, 이를 통해 합격한 학생들은 모두 6만8944명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수능 최저기준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지와 정시모집 확대를 촉구하는 청원에 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최저학력 기준 유지를 주장한 이들 대부분은 수시모집, 특히 학종전형을 통한 입시의 예측성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학종전형이 합격·불합격의 기준을 알 수 없어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가장 객관적이라고 평가받는 수능 최저기준을 없앨 경우 당락의 예측 가능성과 전형의 신뢰도가 더 떨어진다는 것이다.

입시업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진다면 각 대학이 학종을 비율을 더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책당국의 바람처럼 수험생·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려면 수시모집 비중이 지금보다 낮아야 한다는 게 입시업계의 분석이다.

임성호 중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교육부가 이런 권고를 더 강력하게 한다면 상위권 대학들은 학종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8:2인 상황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면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역전의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시모집 비율이 낮아져야 장기적으로는 학생 부담이 줄고 내신이 나쁜 학생들도 고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남뉴스



내년 초교 6년 교과서 훗불집회 실린다

자유민주주의 발전 서술 늘어

내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쓸 사회 교과서(사진)에 훗불집회 모습이 실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서술을 늘리면서 대학생 박종철 사망 사건이나 이한열 사망 이후의 주요 행렬 내용이 포함됐고, 평화적인 공동체 문제 해결과 시민참여 방법으로 최근의 훗불집회 사례가 추가됐다"고 26일 밝혔다.

교과서와 수업·평가 방식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2015 개정 교육과정) 학생들은

연차적으로 새 교과서를 쓰게 된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올해는 초3~4학년과 중1, 고1이 새 교과서를 쓰고, 내년에는 초5~6학년과 중2, 고2가 새 교과서로 수업하게 된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쓸 사회 교과서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편찬됐고, 학생들의 학습부담이나 학습 자료로서의 유용성 등을 검토한 뒤 수정·감수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본이 만들어진다.

연남뉴스

미세먼지 극성에 날씨 앱 인기

다운로드 원기날씨·케이웨더 순

봄철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은 '원기날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디지털 마케팅 기업인 NHN에드는 "이번 달 3주 차에 국내 미세먼지·날씨 관련 앱 설치 수를 집계한 결과, '원기날씨'가 145만여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원기날씨'는 미세먼지와 날씨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간결한 조작체제(UI 덕분에 40~50대에 특히 인기가 높았다고 NHN에드는 설명했다.

이어 '케이웨더'와 '미세미세'는 총 설치 수가 각

각 103만여건과 89만여건이었다.

'케이웨더'는 날씨 정보와 관련해 이용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며 예보가 틀리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었다고 NHN에드는 설명했다. 이 사이트는 5·18민주화운동과 전라도 비방의 온상으로도 지목받고 있다.

'미세미세'는 미세먼지 정보에 특화된 앱으로 전주(이번 달 2주차) 대비 신규 설치자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세먼지 농도를 8단계로 상세 분석해주는 것이 장점이다.

4위는 29만여건인 '웨더폰'이 차지했다. 이 앱은 사용자의 현 위치나 관심 지역에서 반경 1~2km 내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준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靑 "일베, 불법정보 비중 등 따져 폐지 가능"

법무비서관, 폐지 청원 답변

청와대가 극우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베스트저장소(일베)'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광주일보 23일자 7면)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지난 23일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불법 게시물 등)'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음란물이 대부분이던 '소라넷', 일부 도박사이트들이 여기에 해당해 폐쇄됐다"며 "다만 대법원 판례는 불법정보 비중만 보는 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 제작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 "방통위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물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와 협의

해 차별·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5년간 차별·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었다고 NHN에드는 설명했다. 이 사이트는 5·18민주화운동과 전라도 비방의 온상으로도 지목받고 있다.

일베 회원들이 악명에 기대 전라도와 광주 시민, '5·18' 피해자 등을 '흥어'라는 단어로 표현하며 헐뜯는가 하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반란'으로 왜곡하는 게시물을 집요하게 생산해왔기 때문이다. 법적·사회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한 5·18에 대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기도 했다.

한편, 일베를 '우리 사회의 악(惡)'으로 규정된 한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통해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고 지난달 24일 청원 마감 전까지 국민 23만5167명이 동참했다. 김형기기자 khh@

양식 창업 5대 고민!!

해양수산부가 해결해 드립니다.

청년인데,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바다에서 창업하세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유통·가공하여 꾸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배우는 비용이 걱정입니다.

배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합니다.

귀여·귀찮아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미 귀여·귀찮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창업해서 잘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구성, 사후 컨설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연고도 없고, 기술도 모릅니다.

해양수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선배 어민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육기관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실습하면서 기술은 물론 노하우까지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큰정기미새우 양식에 나선 오수형 (38)

강원도 홍천 홍천왕새우 대표.
"이론교육부터 실습, 양식장 견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는 9월 홍천지역축제기간에 수확해 큰정기미새우를 홍보할 생각입니다."

김 양식 창업하는 이범석 (38)

전남 고흥 청년새우 대표.
"전남대 양식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귀어를 결심하고,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횡다리새우 양식에 나선 조현근 (52)

경남 고성 안녕새우 대표.
"교육을 수료한 후 250명의 양식장에서 횡다리새우 22을 출하했습니다. 올해는 1,500평으로 늘려 20여 출하와 함께 실내그린 양식장을 건립해 연중 출하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내 One-Stop 친환경양식창업지원센터가 올 상반기 양식업 창업 및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 및 창업 지원, 컨설팅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한국어촌어항협회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romotion Association

문의처 |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055-642-5702~4,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062-220-0555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7	해질녘 14:15			
		해짐 18:49	달짐 03:34			
매개한 하늘						
서풍이 유입되면서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7/21	보성	맑음	3/20	
목포	맑음	7/17	순천	맑음	7/22	
여수	맑음	9/20	영광	맑음	5/18	
나주	맑음	4/21	진도	맑음	6/15	
완도	맑음	8/19	전주	맑음	7/2	
구례	맑음	3/22	군산	맑음	4/17	
강진	맑음	6/20	남원	맑음	3/22	
해남	맑음	5/19	홍산도	맑음	7/15	
장성	맑음	4/2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	남~남서	0.5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	남서~서	0.5	남~남서	0.5	
남부	앞바다(동)	남서~서	0.5~1.0	남~남서	0.5~1.0	
서부	앞바다(서)	남서~서	0.5~1.0	남~남서	0.5~1.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3:16	17:44			
		16:33	23:04			
여수		12:28	06:05			
		--:--	18:33			
◇ 주간 날씨						
28(수)	29(목)	30(금)	31(토)	4/1(일)	2(월)	3(화)
9/22	9/22	10/21	6/20	8/18	12/17	9/18